

국어 학습 교재



목차

제 1장. 기초어휘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01
혼동하기 쉬운 유의어반의어	04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어휘(다의어) 이해하기	09
어휘를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기	11
사자성어의 뜻과 쓰임	13
속담과 관용표현의 뜻과 쓰임	16

제 2장. 기초국어 (맞춤법·띄어쓰기·발음)

자주 틀리는 맞춤법	19
띄어쓰기 기본 원칙과 자주 틀리는 표현	22
발음과 표기가 헷갈리는 경우	25

제 3장. 기초 문법

품사와 문장 성분의 구분	28
조사를 정확하게 쓰기	32
높임 표현 정확히 쓰기	35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문장부호 바르게 쓰기	38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구별하기	41

제 4장. 문학

문학의 개념과 갈래	43
시의 특징(운율, 행과 연, 상상)	47
다양한 수사법	50
소설·수필·희곡의 특징과 주제 파악	53

제 5장. 화법

화법이란 무엇인가 - 상대방과 상황	56
부탁하고 거절하는 말하기	59
말하기의 목적 구별하기	61
같은 말, 다른 의미 - 상황에 따른 효과	63

제 6장. 문해력

중심생각 찾기	65
문장호응 이해하기	70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73
표그래프 자료 정확하게 읽기	77
글의 순서 파악하기	81

정답과 해설

• 학습 목표

- ☞ 대학생이 자주 접하는 한자어와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 뜻이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어휘의 차이를 구별하여 문맥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 ☞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다의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 어휘를 상황과 표현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
- ☞ 사자성어, 속담, 관용표현의 뜻과 쓰임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 학습 내용

1.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2. 혼동하기 쉬운 유의어·반의어
3.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어휘(다의어) 이해하기
4. 어휘를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사용하기
5. 사자성어의 뜻과 쓰임
6. 속담과 관용표현의 뜻과 쓰임

학습내용 혼동하기 쉬운 한자어

01 한자어란?

- 한자에서 온 말을 한자어라 한다.
- 대학 강의나 보고서, 자기소개서에 자주 등장하지만, 정확한 뜻을 풀어 말하지 못하고 대충 짐작만 하는 경우가 많다.

02 바르게 쓰기 위해 알아둘 점

- 한자어는 뜻이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 뜻을 정확히 모르면 문맥에 맞지 않게 쓰거나, 비슷한 다른 한자어와 헷갈릴 수 있다.

03 대표적인 한자어

간과하다(대충 넘기다)	지양하다(하지 않으려 하다)	도출하다(이끌어내다)
지향하다(나아가려 하다)	부합하다(들어맞다)	제고하다(높이다)



꼭 확인하기

- 한자어는 뜻만이 아니라 쓰임도 함께 익혀야 한다.
- 비슷해 보이는 한자어라도 의미와 쓰임은 다를 수 있다.
- 단어를 문장 속에서 익히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
- 비슷한 자리에 다른 단어를 넣어 어색하면 그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다.

문제

[문항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 ① 자세히 분석하다 ② 대충 넘기다 ③ 강하게 반대하다 ④ 완전히 해결하다

[문항 2] 다음 중 '도출하다'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문 결과를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② 매일 아침 학교에 도출했다
 ③ 도서관에서 책을 도출했다
 ④ 친구와 카페에서 도출했다

[문항 3] 다음 중 '지양하다'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것을 목표로 삼다 ② 어떤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③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찾다 ④ 어떤 것을 반복하다

[문항 4]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교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 ① 다시 검토하다 ② 높다 ③ 제한하다 ④ 제거하다

[문항 5] 다음 중 '타당하다'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치에 맞고 옳다 ② 매우 놀랍다 ③ 전혀 관련이 없다 ④ 지나치게 복잡하다

01 유의어란?

- 유의어는 뜻이 서로 비슷한 단어를 말한다. 그러나 유의어라고 해서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 단어마다 쓰이는 상황이나 어감,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므로 문맥에 맞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02 반의어란?

- 반의어는 뜻이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말한다.
- 반의어를 알면 두 대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글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03 유의어 구별 지침

POINT 예상 / 예측

- 예상: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예측: 자료나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을 미리 판단함
→ 예상은 일반적인 짐작에 가깝고, 예측은 자료·분석·근거가 있을 때 더 자연스럽다.

POINT 이유 / 원인

- 이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까닭
- 원인: 어떤 사건이나 결과가 생기게 된 근본 까닭
→ 이유는 사람의 행동이나 선택과 잘 어울리고, 원인은 사건·사고·결과의 발생과 잘 어울린다.

POINT 개선 / 개혁

- 개선: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을 더 좋게 고침
- 개혁: 제도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꿈
→ 개선은 부분을 더 낫게 다듬는 것이고, 개혁은 전체 틀이나 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다.

POINT 관찰 / 관측

- 관찰: 대상의 모습이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봄
- 관측: 일정한 기준과 방법으로 자연 현상이나 수치를 재어 봄
→ 관찰은 눈여겨 살펴보는 데 초점이 있고, 관측은 기상·천문·수치 등 객관적 자료를 재는 데 주로 쓰인다.

POINT 점검 / 확인

- 점검: 상태나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봄
- 확인: 맞는지 틀리는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아봄
→ 점검은 전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확인은 사실 여부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이 있다.

POINT

비교 / 비유

- 비교: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
- 비유: 어떤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함
→ 비교는 서로 견주는 것이고, 비유는 표현을 위해 다른 것에 빗대는 것이다.

POINT

확대 / 증가 / 증대

- 확대: 범위나 규모를 넓힘
- 증가: 수나 양이 늘어남
- 증대: 정도나 규모가 더 커짐
→ 확대는 넓어짐, 증가는 수량이 많아짐, 증대는 규모나 정도가 커짐에 초점이 있다.

04 함께 알아둘 반의어

증가(수나 양이 늘어남) ↔ 감소(수나 양이 줄어듦)

개선(더 좋아짐) ↔ 악화(더 나빠짐)

추상적(대강의 성질만 말하여 분명하지 않음) ↔ 구체적(실제 내용이 분명하고 자세함)

적절하다(상황이 알맞다) ↔ 부적절하다(상황에 알맞지 않다)

복잡하다(여러오소가 얽혀 있어 간단하지 않다) ↔ 단순하다(구조나 내용이 간단하고 분명하다)



꼭 확인하기

- 유의어는 뜻이 비슷하지만, 쓰임과 어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 반의어는 뜻이 반대되는 단어로, 대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때 효과적이다.
- 비슷한 뜻의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따로 있을 수 있다.
- 헷갈릴 때에는 단어를 실제 문장에 넣어 비교해 보면 뜻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문항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상청은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내일 폭설을 ()했다.

① 예상

② 예측

③ 관찰

④ 확인

[문항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가 약속에 늦은 ()는 갑작스러운 정전 때문이었다.

- ① 원인 ② 이유 ③ 결과 ④ 근거

[문항 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재의 정확한 ()은 아직 조사 중이다.

- ① 원인 ② 이유 ③ 결과 ④ 근거

[문항 4] 다음 중 '개선'과 '개혁'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두 단어는 완전히 같은 뜻이다
② '개선'은 부분적으로 더 좋게 고치는 것, '개혁'은 제도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③ '개선'이 '개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뜻한다
④ '개혁'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문항 5]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개미의 움직임을 오랫동안 ()했다.

- ① 관찰 ② 관측 ③ 확인 ④ 점검

[문항 6]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상청은 매일 기온과 강수량을 ()한다.

- ① 관찰 ② 관측 ③ 예상 ④ 상상

[문항 7] 다음 중 '비교'와 '비유'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두 단어는 같은 뜻이다
② '비교'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보는 것, '비유'는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③ '비유'는 수치로만 나타낸다
④ '비교'는 문학에서만 쓰인다

[문항 8]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발 전에 자동차 상태를 꼼꼼히 ()했다.

- ① 확인
- ② 점검
- ③ 관찰
- ④ 예측

[문항 9]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출하기 전에 오타자가 없는지 다시 한번 ()했다.

- ① 확인
- ② 점검
- ③ 관측
- ④ 상상

[문항 10] 다음 중 확대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축소
- ② 범위를 넓힘
- ③ 양이 줄어들
- ④ 삭제

[문항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회사 실적이 계속 증가하던 흐름이 올해는 오히려 ()했다.

- ① 확대
- ② 유지
- ③ 감소
- ④ 증대

[문항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태가 호전되는 듯했으나 다시 ()되었다.

- ① 개선
- ② 향상
- ③ 안정
- ④ 악화

[문항 13] 다음 밑줄 친 말과 반대되는 것은?

선생님의 설명은 너무 초상적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 ① 포괄적
- ② 구체적
- ③ 형식적
- ④ 일반적

[문항 1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내용은 발표 주제로 적절하지 않다. 즉, 발표 주제로는 ()하다.

- ① 정확 ② 적절 ③ 부적절 ④ 적합

[문항 15] 다음 밑줄 친 말과 반대되는 것은?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요.

- ① 단순해요 ② 어려워요 ③ 길어요 ④ 많아요

01 다의어란?

- 다의어는 하나의 단어가 서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 같은 단어라도 문장 속에서 어떤 상황에 쓰였는지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맥을 바탕으로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

02 다의어가 중요한 이유

- 일상에서 자주 쓰는 쉬운 단어일수록 여러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어의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뜻을 잘못 이해하기 쉽다.
- 다의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어휘 문제도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

03 대표적인 다의어

붙다	시험에 붙다 / 벽에 붙다 / 불이 붙다
통하다	말이 통하다 / 길이 통하다 / 전기가 통하다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 물건이 (벽에) 걸리다 / 병에 걸리다
잡다	손을 잡다 / 낱파를 잡다 / 자리를 잡다

☑ 꼭 확인하기

- 다의어는 문맥 속에서 정확한 뜻을 판단해야 한다.
- 같은 단어라도 함께 쓰인 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이 될 수 있다.
- 단어 앞뒤에 어떤 말이 함께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면 정확한 뜻을 찾을 수 있다.
- 문장 전체가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 먼저 파악한 뒤 단어의 뜻을 고르는 것이 좋다.

문제

[문항 1] 다음 밑줄 친 '붙다'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시험에 붙었다.
- ② 벽에 포스터가 붙었다.
- ③ 면접에 붙었다.
- ④ 이번 학기 장학금 심사에 붙었다.

[문항 2] 다음 문장에서 '통하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골목은 큰길로 통한다.

- ① 의사소통이 되다 ② 길이 이어지다 ③ 전기가 흐르다 ④ 마음이 맞다

[문항 3] 다음 문장에서 '걸리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준비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 ① 어떤 일에 시간이 들다 ② 물건이 매달리다
③ 병에 걸리다 ④ 문제에 걸려 넘어지다

[문항 4] 다음 밑줄 친 '걸리다'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벽에 시계가 걸려 있다. ② 감기에 걸렸다.
③ 천장에 등이 걸려 있다. ④ 옷걸이에 외투가 걸려 있다.

[문항 5] 다음 문장에서 '크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다.

- ① 몸집이 크다 ② 소리가 크다 ③ 훌륭하게 성장하다 ④ 나이가 많다

[문항 6] 다음 밑줄 친 '잡다'의 의미가 다른 하나는?

- ① 손잡이를 잡다. ② 회의 날짜를 잡았다. ③ 범인을 잡았다. ④ 물고기를 잡았다.

[문항 7] 다음 중 다의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관련된 의미를 가지는 것
② 서로 뜻이 반대인 두 단어
③ 뜻이 비슷한 두 단어
④ 한자에서 온 단어

01 뜻은 알아도 잘못 쓰는 경우

-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무 문장이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단어에 따라 함께 쓰이는 말의 짝(연어)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 예를 들어, '역할을 맡다'는 자연스럽지만 '역할을 잡다'는 뜻은 통할 수 있어도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

02 자주 쓰이는 짝 표현

- 국어에는 자연스럽게 굳어져 쓰이는 표현이 많다.
- 역할을 맡다, 책임을 맡다, 성과를 거두다, 어려움을 겪다, 어려움을 극복하다, 시험에 임하다, 목표를 세우다, 의견을 반영하다 등이 자주 쓰인다.

꼭 확인하기

- 단어는 혼자 쓰이지 않고,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이 있다.
- 뜻이 맞아 보여도 단어의 짝이 어울리지 않으면 문장이 어색해질 수 있다.
- 단어를 외울 때는 뜻만이 아니라,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도 같이 익혀야 한다.

문제

[문항 1]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 | | |
|-----------------|-----------------|
| ① 나는 조장 역할을 잡았다 | ② 나는 조장 역할을 맡았다 |
| ③ 나는 조장 역할을 들었다 | ④ 나는 조장 역할을 걸었다 |

[문항 2]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문제를 건었다
- ②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문제를 겪었다
- ③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문제를 잡았다
- ④ 이번 프로젝트에서 여러 문제를 얻었다

[문항 3] 다음 중 '임하다'가 자연스럽게 쓰인 문장은?

- ① 성실한 자세로 시험에 임했다 ② 친구와 카페에 임했다
- ③ 책임을 임했다 ④ 버스를 임했다

[문항 4]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어색한 문장은?

- ①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② 최선을 다해 성취했다
- ③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④ 최선을 다해 도전했다

[문항 5]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목표를 세우다 ② 목표를 건다 ③ 목표를 잡히다 ④ 목표를 붙다

[문항 6] 다음 중 '반영(하다)'이 자연스럽게 쓰인 문장은?

- ①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② 학생들이 교실에 반영했다
- ③ 시험 결과가 반영을 걸었다 ④ 학생들이 반영을 맡았다

[문항 7] 다음 중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책임을 맡다 ② 책임을 건다 ③ 책임을 서다 ④ 책임을 붙다

[문항 8] 다음 중 어색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고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겪었다.

- ① 좋은 성과를 걸었다 ②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③ 좋은 성과를 잡았다 ④ 좋은 성과를 붙었다

[문항 9] 단어를 익힐 때 그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이는 표현을 같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장을 길게 쓰기 위해서
- ② 짝을 이루는 표현과 함께 쓰이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 ③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기 때문에
- ④ 모든 단어는 아무 말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01 사자성어란?

-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어 표현으로, 짧은 말 속에 교훈이나 상황, 생각을 간단하고 인상 깊게 담고 있다.
- 그래서 사자성어를 알면 글의 뜻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 속 상황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02 사자성어를 이해하는 방법

- 사자성어 문제를 풀 때에는 먼저 그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같은 사자성어라도 단어만 외우면 헷갈릴 수 있지만, 문장 속 상황과 연결하면 뜻을 더 쉽게 알 수 있다.

03 대표적인 사자성어

작심삼일(作心三日)	굳게 마음먹어도 오래 지속되지 못함
우이독경(牛耳讀經)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함 (소 귀에 경 읽기)
일석이조(一石二鳥)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봄
조삼모사(朝三暮四)	눈앞의 차이만 보고 결과가 같음을 모름
좌충우돌(左衝右突)	계획 없이 이리저리 마구 부딪치며 나아감
동상이몽(同床異夢)	겉으로는 함께 있어도 속마음(생각)은 다름
이심전심(以心傳心)	말이나 행동 없이도 서로 마음이 통함
백전백승(百戰百勝)	싸울 때마다 반드시 이김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걱정할 일이 없음
동고동락(同苦同樂)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혀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앎
자화자찬(自畫自讚)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칭찬함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음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새옹지마(塞翁之馬)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려움
타산지석(他山之石)	남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청출어람(靑出於藍)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옴
마이동풍(馬耳東風)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림

고진감래(苦盡甘來)	고생 끝에 낙(좋은 일)이 올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함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
자업자득(自業自得)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음
부화뇌동(附和雷同)	자기 생각 없이 남의 의견에 무조건 따름
안하무인(眼下無人)	눈 아래 사람이 없는 듯 남을 업신여김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백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함



꼭 확인하기

- 사자성어는 네 글자 속에 상황이나 교훈을 담은 표현이다.
- 사자성어는 뜻만 따로 외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함께 익혀야 한다.
- 비슷해 보이는 사자성어도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구별해야 한다.



[문항 1] '결심이 오래가지 못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 ① 작심삼일 ② 유비무환 ③ 동고동락 ④ 온고지신

[문항 2]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사자성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힘든 일을 겪은 뒤 오히려 좋은 기회를 얻었다.

- ①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하기 어렵다 ②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
 ③ 나쁜 일은 반복된다 ④ 노력해도 소용없다

[문항 3] '남의 하찮은 언행도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 ① 타산지석 ② 청출어람 ③ 마이동풍 ④ 고진감래

[문항 4]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 ① 온고지신 ② 청출어람 ③ 자화자찬 ④ 과유불급

[문항 5]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사자성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는 마이동풍으로 흘러들었다.

- ① 귀담아듣지 않는다
- ② 매우 감동받는다
- ③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 ④ 화를 낸다

[문항 6]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 ① 고진감래
- ② 동상이몽
- ③ 좌충우돌
- ④ 백전백승

[문항 7] 다음 상황에 가장 알맞은 사자성어는?

두 사람은 겉으로는 함께 일하는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목표를 갖고 있었다.

- ① 이심전심
- ② 동상이몽
- ③ 동고동락
- ④ 유비무환

[문항 8]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어는?

- ① 과유불급
- ② 일석이조
- ③ 조삼모사
- ④ 우이독경

[문항 9] 다음 중 사자성어와 뜻의 연결이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결초보은 –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 ② 백전백승 – 싸울 때마다 짐
- ③ 이심전심 –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함
- ④ 유비무환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음

[문항 10] 다음 문장의 밑줄 친 사자성어의 뜻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 둔 덕분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실감했다.

- ①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 ② 준비해도 소용없다
- ③ 걱정이 많으면 실패한다
- ④ 준비는 필요 없다

01 속담

- 속담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생활 경험, 교훈, 상황 판단을 짧게 담아낸 말이다.
- 속담은 뜻만 외우기보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와 함께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쉬운 일도 협력하면 더 쉬워진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은 빠르게 널리 퍼진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릴 때 생긴 습관이 오래 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야 뒤늦게 손쓴다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잘 모른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잘하는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다
우물 안 개구리	넓은 세상을 모르고 좁은 생각에 머문다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도 모이면 큰 것이 된다
가재는 게 편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감싸게 된다
누워서 떡 먹기	아주 쉬운 일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원인에 따라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실속 없는 사람이 더 떠들썩하다

02 관용표현

- 관용표현은 낱말의 본래 뜻이 아니라 하나로 굳어진 비유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말뜻과 실제 뜻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장 속 상황과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놓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
발이 묶이다	어떤 사정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다
어깨가 으쓱해지다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아지다
눈이 높다	기준이 까다롭다
손발이 맞다	함께 일할 때 마음이나 행동이 잘 맞다
코가 납작해지다	창피를 당해 기가 죽다
입이 무겁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다
귀가 얇다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
가슴이 뜨끔하다	잘못을 지적받아 뜨끔한 느낌이 들다

• 학습 목표

- ☞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쓸 수 있다.
- ☞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자주 틀리는 사례를 바르게 고칠 수 있다.
- ☞ 발음과 표기가 다른 단어를 문맥에 맞게 정확히 쓸 수 있다.

• 학습 내용

1. 자주 틀리는 맞춤법
2. 띄어쓰기 기본 원칙과 자주 틀리는 표현
3. 발음과 표기가 헛갈리는 경우

학습내용 자주 틀리는 맞춤법

01 맞춤법이란?

- 맞춤법은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만 적지 않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바르게 적는 방법을 말한다.

02 헛갈리기 쉬운 표현

- 발음이 비슷하거나 모양이 비슷한 말은 자주 혼동된다.
- 대표적으로 되/돼, 안/않, 든지/던지, 로서/로써, 웬지/웬, 갈게/갈께, 며칠/몇일, 어이없다/어의없다 가 있다.

03 대표적인 구별 포인트

되 / 돼	‘되어’를 넣어 자연스러우면 돼를 쓴다.
안 / 않	안은 ‘아니’, 않-은 ‘아니하-’와 관련된다.
든지 / 던지	든지는 선택, 던지는 지난 일에 대한 회상과 관련된다.
로서 / 로써	로서는 자격, 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낸다.
웬지 / 웬	웬지는 ‘왜인지’의 준말이고, 웬은 ‘어떤’, ‘어찌 된’의 뜻으로 쓰인다.
갈게	‘-ㄴ게’가 바른 표현이며, 갈께는 틀린 표기이다.
며칠	표준 표기는 며칠이다.



꼭 확인하기

- 돼는 '되어'의 준말인데, '돼/되'가 헷갈릴 때는 '해/하'를 넣어 보면 된다.
- 안과 앓은 '아니', '아니하-'를 떠올리면 구별하기 쉽다.
- 든지/던지가 헷갈릴 때는 '-거나(선택)'를 넣어 자연스러우면 든지에 해당한다.
- 로서는 자격(아버지로서/학생으로서), 로써는 수단(대화로써)을 나타낸다.
- '웬지' 외에는 모두 '웬'(웬일로, 웬만하면, 웬 떡이냐)으로 표기하도록 한다.
- 갈게, 며칠, 어이없다는 자주 틀리므로 형태를 그대로 익혀 두는 것이 좋다.



[문항 1]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 ① 오늘은 안 돼요 ② 오늘은 안 되요 ③ 오늘은 앓 돼요 ④ 오늘은 앓 되요

[문항 2] 다음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 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안았다 ②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앓았다
③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앓한다 ④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안는다

[문항 3]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맞춤법이 올바른 것은?

- ① 발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검토되야 한다
② 발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
③ 발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검토되다
④ 발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검토돼었다

[문항 4] 다음 중 문맥에 맞는 표현은?

네가 가든지 내가 가() 결정하자.

- ① 던지 ② 든지 ③ 던가 ④ 든가

[문항 5] 다음 중 문맥에 맞는 표현은?

어제 얼마나 춥() 손이 다 얼었다.

- ① 든지 ② 던지 ③ 든가 ④ 든

[문항 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맞춤법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대화로써 갈등을 풀었다
③ 연구자로서의 태도가 중요하다 ④ 노력으로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문항 7]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옳바르게 쓰인 것은?

- ①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② 웬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
③ 웬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다 ④ 이게 웬일이니

[문항 8] 다음 중 맞춤법이 옳바른 것은?

- ① 내일 갈게 ② 내일 갈께 ③ 내일 갈겠요 ④ 내일 갈께요

[문항 9] 다음 중 맞춤법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따가 만나자 ② 며칠 후에 보자
③ 그는 방에 있다가 나왔다 ④ 몇일 후에 다시 오겠다

[문항 10] 다음 중 맞춤법이 옳바른 것은?

- ① 발표 도중 어의없는 실수를 했다 ② 발표 도중 어이없는 실수를 했다
③ 발표 도중 어이업는 실수를 했다 ④ 발표 도중 어의업는 실수를 했다

01 띄어쓰기 기본 원칙

- 단어는 각각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02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조사는 문장 안에서 말과 말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말이다.
은/는, 이/가, 을/를, 예, 에서, 와/과, 도, 만, 까지, 부터, 조차, 마저, 커녕, 밖에 등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나는/학교에/친구와/물만/지금까지/너밖에/칭찬은커녕)

03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 '것, 수, 데, 만큼, 뿐, 적, 지(시간의 경과)' 등은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할 수 있다/아는 것이 힘이다/떠난 지 오래되었다/생각한 만큼 어렵다/웃을 뿐이다)
- 의존명사는 뜻이 완전하지 않아 다른 말의 도움을 받아 쓰이며, 조사처럼 보이기 쉬워 자주 헷갈린다.

04 형태는 같아도 품사가 다르면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 같은 말이라도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POINT 뿐

- 너뿐이다 → 조사
- 할 뿐이다 → 의존명사

POINT 만큼

- 너만큼 한다 → 조사
-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 의존명사

POINT 지

- 가는지 모르겠다 →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 떠난 지 삼 년이 되었다 →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05 헷갈릴 때 살펴볼 점

- 어떤 말이 앞말에 붙는지 띄어 쓰는지 그 말의 품사와 기능을 보면 구별할 수 있다.
- 앞말에 붙여 관계를 나타내면 조사이고, 뜻이 불완전하여 앞말의 꾸밈을 받으면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크다.
- '-아/어' 뒤에 오는 '보다', '주다' 등과 같은 보조 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먹어 보다/먹어보다', '도와 주다/도와주다'처럼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꼭 확인하기

- 은/는, 이/가, 을/를, 도, 만, 까지, 커녕, 밖에 등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 것, 수, 데, 만큼, 뿐, 적, 지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 띄어 쓴다.
- 뿐, 만큼처럼 형태는 같아도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진다.
- 띄어쓰기가 헛갈릴 때에는 그 말이 조사인지, 의존명사인지, 어미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 보조용언의 띄어쓰기는 '-아/어' 형태 뒤에 오는 '보다', '주다' 등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된다.



[문항 1]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할수있다 ② 할 수 있다 ③ 할 수있다 ④ 할수 있다

[문항 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아는것이 힘이다 ② 아는 것이 힘이다
③ 아는 것 이 힘이다 ④ 아는것 이 힘이다

[문항 3]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필요한만큼만 가져가라 ②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③ 필요한 만큼 만 가져가라 ④ 필요한만큼 만 가져가라

[문항 4] 다음 중 조사와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만큼 열심히 한 사람은 없다 ②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
③ 생각한 만큼 어렵지 않았다 ④ 준비한 만큼 실력이 드러난다

[문항 5]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 ① 가는지 모르겠다 ② 언제 오는지 물어보았다
③ 떠난 지 오래되었다 ④ 왜 웃는지 알 수 없다

01 표기와 발음

- 한글은 들리는 소리만 따라 적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맞춤법에 따라 적는다.
- 그래서 실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02 음절이란?

- 음절은 한 번에 소리 내어 읽는 말의 단위이다.
- 예를 들어 바다는 2음절, 아버지는 3음절이 된다.

03 소리가 달라지는 쉬운 경우

- 우리말은 앞뒤 소리의 영향을 받아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가 달라져도 표기는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다.

POINT 비음화

- 받침 ㄱ, ㄷ, ㅂ 뒤에 ㄴ, ㄹ이 오면, 발음이 ㅇ, ㄴ, ㄹ처럼 바뀌는 경우가 있다. (국물[궁물], 앞문[암문])

POINT 유음화

- ㄴ과 ㄹ이 만나면, ㄴ이 ㄹ처럼 바뀌어 ㄹㄹ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 (설날[설랄], 칼날[칼랄])

POINT 된소리되기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어떤 소리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처럼 더 세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학교[학교], 국밥[국뽕], 식당[식땅])

POINT 거센소리되기

- ㅎ이 뒤의 자음에 영향을 주어 소리를 더 세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축하[추카], 좋다[조타])

POINT 구개음화

- ㄷ, ㅌ이 ㅣ 계열 소리와 만나면 ㅌ, ㅌ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 (같이[가치], 굳이[구지])

POINT ㅎ 탈락

- ㅎ이 모음 앞에서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좋아[조아], 놓아[노아])

POINT 자음군 단순화

- 받침이 두 개인 말은 실제 발음에서 그중 하나만 소리 나는 경우가 있다. (닭[닥], 워다[익따])

04 발음이 비슷해도 뜻과 표기는 다른 경우

- 헛갈릴 때에는 소리만 듣지 말고 뜻과 기본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낳다, 낫다, 낮다는 뜻과 표기가 모두 다르다.
 - 낳다 : 아기를 출산하다
 - 낫다 : 병이나 상처가 좋아지다
 - 낮다 : 높이나 정도가 아래에 있다



꼭 확인하기

- 우리말은 앞뒤 소리의 영향을 받아 실제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 발음의 변화는 일정한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대표적인 경우를 익혀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소리가 달라지더라도 표기는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적어야 한다.



[문항 1] '책상'은 몇 음절인가?

① 1음절

② 2음절

③ 3음절

④ 4음절

[문항 2]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국물[국물]

② 국물[궁물]

③ 국물[구물]

④ 국물[굼물]

[문항 3]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설날[설날]

② 설날[설랄]

③ 설날[선날]

④ 설날[설난]

[문항 4]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학교[학교]

② 학교[학교]

③ 학교[하교]

④ 학교[향교]

[문항 5]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① 축하[축하]

② 축하[추카]

③ 축하[추하]

④ 축하[추가]

[문항 6]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같이[가티] ② 같이[가치] ③ 같이[가디] ④ 같이[가시]

[문항 7] 다음 중 발음이 바르게 표기된 것은?

- ① 닭[닭] ② 닭[닥] ③ 닭[달] ④ 닭[다]

[문항 8] 다음 문장에서 문맥에 맞는 단어는?

상처가 다 ()

- ① 낳았다 ② 나았다 ③ 낫았다 ④ 낯았다

[문항 9] 다음 문장에서 문맥에 맞는 단어는?

그녀는 어제 아기를 ().

- ① 낳았다 ② 나았다 ③ 낫았다 ④ 낯았다

[문항 10] 다음 단어의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낫다-아기를 출산하다 ② 낳다-병이 좋아지다
③ 낫다-병이나 상처가 좋아지다 ④ 낳다-출산하다